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6, No. 139, pp.41-78
<https://doi.org/10.29212/mh.2026..139.4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논문 2

헌종대 총위영의 창설과 숙위 강화 시도

이강원 |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수료

- 목 차
1. 머리말
 2. 숙위 강화의 필요와 총위영의 창설
 3. 총위영의 숙위 강화와 군사운영
 4. 헌종 사후 총위영 폐지와 총융청으로의 환원
 5. 맺음말

초록 본 논문은 현종 12년(1846) 설치된 총위영의 창설과 운영, 그리고 혁파 이후 총융청으로의 환원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19세기 전반 조선의 수도방어체제와 숙위체제의 재편을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총위영은 18세기 이후 연용대와 북한산성을 거점으로 도성과 외곽 방어를 연계하며, 수도방어의 중추기능을 담당해 온 총융청을 제도적 기반으로 삼아 재편된 군영이었다.

19세기 전반 조선은 재정 고갈과 군사력 약화, 세도정국의 심화 속에서 기존 수도방어체제의 운용에 적지 않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동시에 이양선의 출몰 등 대외적 위기 또한 점차 현실화 되면서, 도성 안팎을 아우르는 보다 실질적인 군사 대응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총융청은 연용대와 북한산성을 거점으로 도성 외곽 방어를 담당하는 한편, 국왕의 행행 호위와 유진, 도성 수비 등 숙위와 밀접한 임무를 점차 확대해 온 군영이었다. 따라서 총위영의 설치에 변화한 군사환경 속에서 총융청이 축적해 온 임무 경험을 제도적으로 강화한 조치였으며, 제한된 재정과 군사력 속에서 조선 정부가 선택한 현실적 군사 개편이었다.

총위영은 타 중앙군영의 병력과 재원을 이속받아 시위·입직 등 숙위 임무를 집중적으로 담당하였고, 교육·훈련과 편제 정비를 통해 숙위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비록 총위영은 현종 사후 단기간에 혁파되어 총융청으로 환원되었지만, 그 설치와 운영은 19세기 전반 총융청의 기능 전환에서 비롯하였으며, 이후 무위소 설치의 전범으로도 작용하였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총위영을 조선후기 수도방어체제 변화의 계기적 변화의 핵심적 결절점으로 재평가하고자 한다.

주제어: 총위영, 현종, 숙위, 총융청, 수도방어, 19세기, 군제개편, 군사

1. 머리말

19세기 전반 조선 정부는 안팎으로 발생하는 여러 격변에 대응해야 했다. 군사적인 측면에도 새로운 방어전략과 군사편제 마련의 필요성이 점층했다. 하지만 잦은 재해와 기근으로 인해 국가재정이 점차 고갈됨에 따라 지방군뿐 아니라 중앙군의 운영에도 여러 가지 난점이 발생했다. 이른바 세도 정국으로 인해 중앙군영이 일부 가문과 세력에 의해 장악된 것도 문제였다.¹⁾ 이에 국왕과 조선 정부는 현실적인 한계 속에서도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전략과 군사편제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총위영은 18세기 후반 이후 도성 외곽 방어와 숙위 보조 임무를 담당해 온 총융청을 기반으로 여러 군영과 기관의 병력·재원을 결합하여 재편한 군영이었다. 즉 총위영의 설치는 19세기 제한된 재정과 군사 여건 속에서 기존 군영의 병력 편제와 물자를 재조정하여 숙위를 강화하고자 했던 현실적 군제 개편이었다.

총위영은 비록 현종의 사망 이후 설치 3년 만에 다시 총융청으로 환원되었지만, 그 짧은 존속 기간만으로 그 역사적 의미를 축소하기는 어렵다. 총위영은 운영 기간 동안 다양한 교육·훈련에 바탕해 시위·입직의 실무를 통해 숙위 기능의 내실화에 일정하게 기여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재편 경험은 이후 고종대 무위소 설치

* 이 논문은 2023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3S1A5B5A170864).

1) 19세기 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는 한국역사연구회 편, 『조선 정치사』(상)(하), 청년사, 1990.가 참조된다.

에도 직접적인 전범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총위영은 19세기 조선에서 수도방어체제와 숙위체제가 어떻게 재조정되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총위영의 설치 배경과 과정 및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19세기 조선의 수도 방어전략과 군사운영의 추이를 보다 계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주요한 실마리를 제공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기존에도 총위영의 설치와 군제에 대한 연구가 일정하게 진행된 바 있다.

먼저, 19세기 전반 중앙군 군사 운영의 실상과 총위영의 창설과 관련해 여러 연구들이 제출된 바 있다. 먼저 총위영의 창설을 비롯해 19세기 전반의 군사사를 정치사적인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한 연구들이 참고된다.²⁾ 해당 연구들은 19세기 군사 운영의 특징을 세도정권의 군권 장악과 그에 대응하는 국왕의 친위 병력 확보라는 맥락 속에서 파악하였다.

이는 해당 시기 지속적으로 숙위군영의 설치가 시도되는 정치사적인 배경과 의의를 이해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하지만 이상의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왜 현종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숙위군영인 총위영이 설치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여러 군영중에서 하필이면 왜 총융청이 숙위군영으로 재편되게 되었는지에 대해 충분한 해명이 이뤄지지는 못했다.

그런가 하면 군사사적인 맥락에서 총위영의 편제와 운영상을 다룬 기록인 『총위영사례』의 기록을 바탕으로 실제 총위영의 편제와

2) 李泰鎭, 「19세기 초 勢道政治와 三軍門 都城常住兵制」, 『朝鮮後期の 政治와 軍營制 變遷』, 韓國研究院, 1985 ; 오종록, 「중앙 군영의 변동과 정치적 기능」, 『조선정치사』(하), 청년사, 1990 ; 車文燮, 「朝鮮後期 中央軍制의 再編과 首都 防衛」, 『朝鮮時代 軍事關係研究』, 단국대학교 출판부, 1996 ; 심승구, 「19세기 전반 군영의 변동과 수도방위체제의 변화」, 『조선후기의 수도방위체제』, 서울학 연구소, 1998 ; 배향섭, 『19세기 조선의 군사제도 연구』, 국학자료원, 2002.

운영상을 살펴보고자 한 연구도 제출되었다.³⁾ 해당 연구를 통해 총위영의 대략적인 편제와 활동상은 일정하게 밝혀졌다. 하지만 그러한 구조정비와 군사 활동이 어떻게 시위, 입직 등 숙위 실무의 수행에 이바지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적지 않다. 아울러, 총위영의 해체 이후 총융청으로 환원되는 과정과 내용 및 총위영의 설치 및 운영 경험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 못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총위영이 설치된 정치 및 군사적인 배경과 그 실효와 더불어 총위영의 효과와 그 의의 등 대해 밝혀보고자 한다. 1장에서는 먼저 19세기 전반 군사 환경의 변화 속에서 총융청이 점차 도성 수비 및 숙위와 밀접한 군영으로 탈바꿈하는 과정과 현종대 후반의 정국 변화에 대한 분석할 것이다. 이어서 총융청이 총위영으로 정비되는 과정과 군사편제, 시설, 재정 등의 구조변화가 어떻게 총융청을 숙위군영인 총위영으로 탈바꿈하였는지도 살펴 볼 것이다.

2장에서는 총위영으로의 재편 이후 이뤄진 총위영의 군사활동이 실제 숙위의 증강에 어떻게 이바지했는지에 대해 규명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특히, 총위영이 수행한 다양한 교육과 훈련 및 시위(侍衛), 입직(入直) 등의 임무 수행이 이전 시기에 비해 어떻게 숙위를 내실화 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끝으로 3장에서는 총위영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군사·재정 운영상의 문제점과 제도적 한계를 살펴보고, 현종 사망 이후 총위영이 폐지되어 총융청으로 환원되는 과정과 그 실태를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총위영의 운영이 지닌 성과와 한계를 함께 검토함으로써, 19세기 조선의 군사 운영이 변화한 조건 속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조정·재편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3) 최효식, 「總衛營」, 『朝鮮後期軍制史研究』, 신서원, 1995.

이상의 작업을 통해 본 논문은 총위영의 설치와 운영 및 효과가 가지는 군사사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다. 본 논문은 이를 통해 기존에 퇴행과 낙후의 시대라는 선협적인 관념으로 인식되어 오던 19세기 조선 군사사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해의 지평을 마련하는 것을 그 최종적인 목표로 삼는다.

2. 숙위 강화의 필요와 총위영의 창설

18세기 조선의 수도방어체제는 기존에 유사시 도성을 버리고 강화도와 남한산성 등 보장처로 대피하는 것을 골자로 했던 보장처 방어체제에서 벗어나, 도성과 그 외곽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도성을 사수하는 ‘도성수비체제’로 재편되었다. 이 과정에서 총융청은 도성과 북한산성 사이의 구릉지대인 연운대와 북한산성 일대를 거점으로 삼아 도성과 외곽 방어를 연계하는 중추적 임무를 수행하는 핵심 군영으로 재편되었다.⁴⁾

그런데 18세기 후반을 전후해 수도방어체제의 운용 방향은 점차 도성 외곽 방어의 유지에서 궁궐과 도성 일대의 숙위 강화로 이동하였다. 이는 대내외 정세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대외적으로는 준가르 몽골의 소멸 이후 국제정세가 점차 안정되면서, 육로를 통한 외적의 대규모 침입 가능성이 이전보다 현저히 낮아졌다.⁵⁾

4) 조준호, 「영조대 「수성절목」의 반포와 수도방위체제의 확립」, 『조선후기 수도방위체제』, 서울학연구소, 1998 ; 노영구, 『영조대의 한양 도성 수비 정비』,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3 ; 이강원, 「18세기 총융청의 도성 외곽 방어체제 정비와 북한산성의 위상 변화」, 『서울과 역사』 114, 2023.

5) 권내현, 「조선후기 평안도 방어체제의 정비와 이완」, 『시학연구』 69, 2003, 95~100쪽 ; 노영구, 「중앙 軍營과 지방군을 통해 본 조선후기 국방체제의 변화 양상」, 『藏書閣』 33, 2015, 79~80쪽.

한편 대내적으로는 능행과 사친궁 행차 등 국왕의 도성 안팎 행차가 크게 늘어나면서, 궁궐과 도성 일대는 물론 행차 경로 전반에 대한 호위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⁶⁾ 따라서 수도방어체제의 무게중심 역시 점차 숙위 중심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도성 인근 연용대에 본청을 두고 있는 총용청도 점차 각종 숙위 임무의 수행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정조대에는 숙위 군영인 장용영이 설치되어 운영되었기에,⁷⁾ 총용청은 총용사 직속으로 기고수(旗鼓手)·군뢰(軍牢) 등으로 구성된 경표하군(京標下軍)을 중심으로 국왕의 도성 외 행차시 궁궐 인근에서 주둔하는 유진(留陣) 등의 외곽 경계 임무를 주로 수행했다.⁸⁾ 이에 바탕해 순조 7년(1807)에는 창경궁 선인문 근처에 위치한 옛 장용영의 직방(直房)이 총용청으로 이속되기도 했다.⁹⁾

19세기 전반 장용영이 혁파되고, 어영청과 금위영의 번상 정지가 늘어나면서,¹⁰⁾ 총용청의 임무에서 숙위의 비중이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경표하군이 국왕 행차의 시위(侍衛)에 참여하는 등 보다 직접적으로 숙위 임무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¹¹⁾

하지만 이처럼 총용청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었음에도 19세기 이

6) 이왕무, 「조선후기 국왕의 都城內 幸行의 추세와 변화」, 『朝鮮時代史學報』 43, 2007 ; 이왕무, 『조선시대 국왕의 행행(行幸) 연구 - 왕실 능행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22.

7) 장용영의 창설과 군제정비에 대해서는 박범, 「正祖代 壯勇營의 軍制와 財政 運營」,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이 참조된다.

8) 『만기요람』 군정편 총용청 유진.

9) 『일성록』 순조 7년 6월 20일.

10) 『만기요람』 군정편 3 어영청 향군제변조, 한편, 19세기 어영청과 금위영의 정변 수포 정례화와 재정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이광우, 「19세기 전반기 삼군문(三軍門)의 재정 운영 실태」, 『軍史』 89, 2013가 참고된다.

11) 『결속색등록』 33책, 순조 20년 3월 24일 ; 『총용청행행등록』 권1, 순조 25년 2월 11일 ; 『총용청행행등록』 권1, 순조 25년 8월 20일·9월 8일 ; 『결속색등록』 45책, 순조 32년 5월 22일 ; 『결속색등록』 57책, 현종 10년 8월 6일.

후 그 재정 운영은 점차 파행을 보이게 되었다. 연이은 기근으로 충용청 재정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환곡방식으로 운영되던 북한 산성 군향곡의 환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 수량이 크게 감소하였다.¹²⁾ 그 결과, 현종 12년(1846)에는 ‘충용청에 재력이 없다’라는 표현이 사용될 만큼 충용청의 재정은 고갈 상태였다.¹³⁾ 이에 따라서 충용청의 상비병력인 경표하군 역시 현종대를 거치며 기존의 절반 가량인 589명으로 줄어들었다.¹⁴⁾

이처럼 19세기 전반 충용청은 숙위 기능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었음에도, 재정 고갈과 상비병력의 축소로 인해 그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에 따라 숙위 임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충용청의 조직 및 운영 개편이 불가피했다.¹⁵⁾

한편, 현종 7년(1841) 친정을 시작한 현종은 약화된 왕권과 해이해진 국가 기강을 회복하고자 하였으며, 정조와 효명세자의 전례를 계승해 친위세력을 육성하고 국왕 중심의 정치 운영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종은 기존 안동 김씨 중심의 권력 집중을 견제하는 한편, 외가인 풍양 조씨 인물들을 활용하여 외척 세력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였다.¹⁶⁾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조정 내부에서는 국왕 근접의 숙위 병력

12) 『비변사등록』 222책, 순조 34년 7월 5일.

13) 『충위영사례』 권 1, 緘叙, “蓋揔戎之設 亦嘗久矣 挽近以來 師羸而財匱 無足重輕於軍國”.

14) 『비변사등록』 233책, 憲宗 12年 8月 12日 總衛營節目.

15) 현종 12년(1846) 1월에는 숙위 증강을 위해 훈련도감 소속 무예별감 군병으로 숙위기구인 내영(內營)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무예별감들의 패싸움으로 무위로 돌아간 바 있다(최효식, 『朝鮮後期軍制史研究』, 신서원, 1995, 189~191쪽).

16) 방성원, 「현종 친정기(1841~1849) 정치적 상황과 친위세력 양성」, 『조선시대사학보』100, 2022, 331~332쪽.

을 증강하고 도성 안팎의 경비를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역시 점차 대두되었다.¹⁷⁾ 이에 현종 12년(1846) 1월에는 훈련도감 소속 무예청을 기반으로 숙위전담기구인 내영(內營)을 설치하려는 시도가 이뤄졌으나, 내영 소속 군병간의 패싸움으로 끝내 이는 무위로 오래지 않아 무위로 돌아갔다.¹⁸⁾

현종 12년(1846) 7월 김대건의 국내 잠입과 도성 일대 활동 및 체포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는 조정으로 하여금 도성 안팎의 경비와 국왕 신변 보호 문제를 다시금 예민하게 인식하게 만든 직접적 계기였다.¹⁹⁾ 여기에 같은 해 프랑스 군선이 서해안에 출몰하고, 위협서한을 보이면서 긴장이 한층 고조되었다.²⁰⁾

비록 당시 프랑스의 본격적인 침입 가능성은 높지 않았으나 서학교도와의 외세의 연계 가능성 및 이로 인한 도성 내부의 혼란 가능성은 적지 않은 위협으로 받아들여졌다.²¹⁾ 이러한 상황은 결국 국왕 근접의 숙위 체계를 강화하고 도성 안팎의 치안 및 경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에 현종은 영의정 권돈인과 함께 숙위를 비롯한 중앙군제 개편안을 모색하였다.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새로운 군영을 설치하는 대신 기존 군영을 재편하는 것으로 논의가 정돈되었고, 결국 총융청을 숙위군영인 총위영으로 재편하는 것으로 결론이 맺어지게 되었다.²²⁾

17) 방성원, 앞의 논문, 2022, 336~344쪽, 354~355쪽.

18) 최효식, 『總衛營』, 『朝鮮後期軍制史研究』, 신서원, 1995, 189~191쪽.

19) 민장원, 「19세기 海防策의 전개와 서해안 방어체제의 재편」, 고려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25, 48~50쪽.

20) 『현종실록』 권 13, 현종 12년 7월 3일 ; 『현종실록』 권 13, 현종 12년 7월 15일.

21) 민장원, 앞의 논문, 2025, 60~62쪽.

22) 수어청은 이미 광주에 출진(出鎭)해 있으며, 삼군문은 ‘사무가 번다하다’는 이유로 총융청을 재편하는 것이 결정되었다 『일성록』 현종 12년 7월 25일 ; 『일성록』 현종 12년 8월 5일). 이는 전술한 바 총융청이 이미 18세기 후반부터 숙위 임무에 참여해왔으며, 양영의 정변 및 훈련도감 무예별감의 개편 시도 실패 등의 이유로 인해 총융청이 새로운 숙위군영으로 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총위영이 숙위군영으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상비병력의 확충이 선행되어야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기존 중앙군영의 병력들을 총위영에 이속하는 방향으로 총위영의 편제를 정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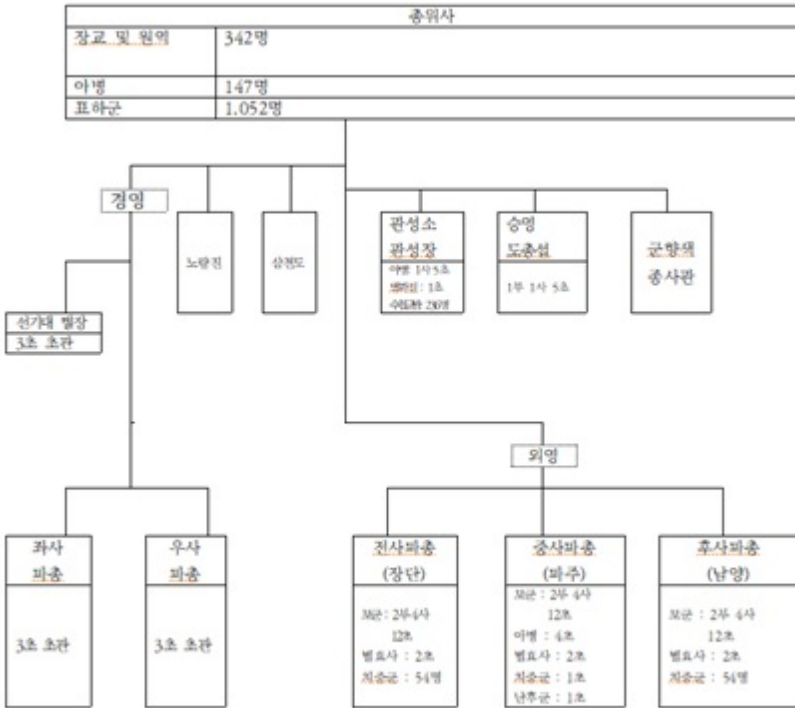
먼저, 훈련도감의 보군(步軍) 6초, 마병(馬兵) 2초 및 특수 기병 부대인 난후별대(攔後別隊) 1초를 총위영에 이속하여 총위영 경영의 조직을 정비하였다. 그 결과 이속된 보군은 2사 6초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마병과 난후별대는 3초의 선기대(善騎隊)로 재편되었다. 훈련도감 병력은 장번급료병으로 운영되어 다른 중앙군영 병력에 비해 숙련도가 높고 상시 동원이 용이하였으므로, 총위영은 이들을 기반으로 국왕 근접의 숙위와 도성 경비를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비 전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기존 총융청 소속이던 북한산성 관성소(管城所), 승영(僧營), 연용대 본청 및 외영의 조직과 병력은 그대로 계승되었으나 외영 소속 3영은 각기 전사, 중사, 후사로 재편되어 총위영은 1영 5사의 편제로 정비되었다. 이는 장용영의 전례를 따른 것이었다.²³⁾

헌종 14년(1848)에는 금위영 소속 노량진과 수어청 소속 삼전도가 총위영으로 이속되었다.²⁴⁾ 노량진과 삼전도는 한강의 주요 나루터를 관할하는 진보였으므로, 이러한 조치는 총위영의 숙위 기능을 궁궐과 도성 내부에 한정하지 않고, 국왕의 능행 등 도성 밖 행차에 필요한 도강로와 수로 교통의 안전 확보까지 포괄하도록 확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3) 『총위영사례』 권 1, 軍制. “本營之制, 專師壯勇, 號營以總衛, 取于總五衛右三營之意也”.

24) 『승정원일기』 2480책, 헌종 14년 12월 22일, “本營自辟鷺梁別將, 移屬總衛營, 守禦廳自辟三田渡別將, 移屬本營, 而亦以此意, 行關廣州府之意, 敢啓. 傳曰, 知道”.



〈그림 1〉 총위영의 군사 편제

전거 : 『총위영사례』(장서각, K2-3378) 軍制

〈표 1〉 총위영 소속 시위(侍衛) 전문 병력의 구성

병종	액수	배경
협련군(挾輦軍)	480명	훈련도감에서 이속
무예별감(武藝別監)	158명	훈련도감에서 이속
창검군(槍劍軍)	102명	금위영에서 이속
별초(別抄)	50명	어영청에서 이속
장용위(壯勇衛)	42명	총위영에서 창설
별기(別技)	미정(1기 2대)	총위영에서 창설

전거 : 『총위영사례』(장서각, K2-3378) 권1, 軍制

기본 편제 외에도 총위영에는 국왕 행차 시 시위와 근접 호위를 전담하는 병종이 집중적으로 편제되었다. 훈련도감의 협련군·무예별감, 금위영의 창검군, 어영청의 별초가 총위영에 이속되었는데 이는 어가 호위와 근접 경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아울러 총위영은 장용위와 별기군을 자체적으로 설치하여 숙위 역량을 보강하였다.²⁵⁾ 이처럼 총위영은 상비병력과 시위 전문 병종을 중심으로 숙위군영의 성격을 분명히 하였다.

군사 편제 정비에 이어 시설의 마련도 이뤄졌다. 총융청을 총위영으로 개편된 이후 창경궁 밖 이현(梨峴) 일대에 위치한 과거 장용영의 영사(營舍)를 신영(新營)으로 고쳐 쓰게 하였다.²⁶⁾ 궁궐 근처에 신영을 마련하게 됨에 따라 총위영은 숙위군영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분명히 할 수 있었다.²⁷⁾

새로운 시설을 마련하는 한편 기존의 총융청 본청과 북한산성 시설도 꾸준히 관리하게 했다. 기존의 본청은 외신영(外新營)으로 삼았다. 북한산성의 성곽 시설 및 탕춘대의 보토소 등에 대해서도 기존과 같이 꾸준히 보수와 관리를 하도록 한 것이다.²⁸⁾ 이는 후술하는 바 해당 시설들 역시 국왕 행차 시 요망과 척후 등을 수행하는 거점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군사 편제와 시설의 확보에 이어 총위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25) 『총위영사례』 권 1, 官職, “壯勇衛之稱, 如龍虎營之內禁衛, 專爲衛扈, 豈特以營號之謂也. 別技軍不爲定額爲白齊, 以馬步元軍及待年軍中抄拔年少壯健者, 定教師三名·旗摠一名·隊長二名, 教習十八技, 春秋別爲試才, 元軍施賞, 待年軍陞元”.

26) 『총위영사례』 권 3, 公廡, “新營, 舊壯勇營也. 內大廳二十四間, 卽內湛恩堂. ○大將坐起之所也”.

27) 또한 과거 북한산성의 여러 창고 및 탕춘대 평창 등에 대부분의 전곡을 비축했던 것과 달리 신영(新營)의 창고에 전곡(錢穀)을 저치하게 하는 규정도 마련되었다(『총위영사례』 公廡, “今則京營門事體自別 以舊壯勇營定其處所 俾爲軍兵聚會錢木儲置之地事 丙午八月日 啓下”).

28) 『총위영사례』 권 3, 雜式.

위해서는 건전한 재정 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했다. 특히, 현종대 후반 총융청의 재정이 사실상 고갈 상태였기에 총위영 운영을 정상화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의 확보가 요구되었다.

먼저, 기본적인 군수(軍需)의 마련을 위해 병조(兵曹)와 중앙 삼군문에서 각기 목(木) 10동과 동전 5만냥 등을 획급 하게 하였다.²⁹⁾ 또한, 훈련도감 등 다른 군영에서 이속된 병력의 급료에 대해서는 원 소속 군영에서 지불하게 함으로써 지출을 줄이게 했다.³⁰⁾

29) 『비변사등록』 233책, 현종 12년 8월 19일, 하지만 어영청과 금위영에서 해당 액수를 다 마련하기는 힘들었고 결국 선혜청의 별비전 1만 3천냥 호조와 병조에서 각기 8천냥, 사복시에서 3천냥의 사복시 등을 빌려와 총위영에 획급하는 조치가 이뤄졌다(『비변사등록』 233책, 현종 12년 8월 21일).

30) 『총위영사례』 권 4, 料祿.

〈표 2〉 총위영에 이속된 둔전의 내역

연번	명칭	원소속처	稅入
1	장흥둔전 (長興屯田)	숙선옹주방	전(錢) : 6,000냥 조(租) : 1,300석
2	재령 수세소 (載寧 水稅所)	경우궁	조(租) : 2,496석 (결당 조(租) 3석)
3	봉산 사인방둔전 (鳳山舍人坊屯田)	경우궁	조(租) 약 30석 ³¹⁾
4	정주대명동둔전 (定州大明洞屯田)	내수사	전(錢) : 1,261냥 (부당 동전 3전 6푼)
5	박천둔전 (博川屯田)	내수사	전(錢) : 596냥 (부당 4전 2푼)
6	순풍둔전 (順豐屯田)	숙선옹주방	조(租) : 약 2,500석 ³²⁾
7	철현둔전 (鐵峴屯田)	훈련도감	철(鐵) : 14,700근 태(太) : 54석 8두 2승 조(租) : 4석 직(稷) : 82석 4두 5승
8	태탄둔전 (苔灘屯田)	어영청	전(錢) : 750냥 조(租) : 250석
9	전주익산둔전 (全州益山屯田)	호조	조(租) : 약 1,350석 ³³⁾
합계			조(租) : 약 7,680석 전(錢) : 8,607냥 철(鐵) : 14,700근 태(太) : 54석 8두 2승 직(稷) : 82석 4두 5승

전거 : 『총위영사례』(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2-3378) 권 4, 畝屯來歷

- 31) 다소 뒷시기의 자료이지만 1891년 『明禮宮秋收記』에 따르면 사인방의 수조액은 조(租) 30석 10두 40승이다. 1892년 기록인 『明禮宮望海亭郡主房秋收記』에서는 사인방의 수조액이 34석 9두 7승이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사인방둔전의 세입은 약 30석 정도로 판단된다.
- 32) 다소 뒷시기의 자료이지만 1887년 『黃海道安岳信川所在順豐屯田畚打作收稅成冊』과 1903년 『於義宮順豐屯下坪七處所秋收都聚成冊』과 『順豐屯上坪六處所秋收都聚冊』의 기록을 통해 볼 때 순풍둔의 세입은 대략 2,500석 수준이었다.
- 33) 『총위영사례』 권 3, 雜에 따르면 답은 1결당 조 10두를 거둔다. 전주익산둔전은 전체 면적 畓 129결이므로 이러한 액수가 산정되었다. 다소 뒷시기인 철종대 자료인 『全州益山屯畚應下磨鍊節目』에 따르면 해당 토지의 도조가 1327석으로 거의 유사하다.

이외에도 위의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각 군영과 아문 및 궁방 등에서 총위영에 둔전을 이획해주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총위영은 매년 조(租) 약 7,680석과 동전 8,600여냥 등의 세입을 확보할 수 있었다. 19세기 초 총융청에서 급료 등의 명목으로 연간에 지출되는 액수가 쌀 2,876석과 동전 11,245냥 가량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면 해당 액수는 기존의 지출액에 일정하게 상응하는 규모의 액수임을 알 수 있다.³⁴⁾

결과적으로 상기한 여러 조치들을 통해 총위영은 총융청 당시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군사편제, 시설 관리 및 재정 구조를 마련해 숙위군영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다. 실제로 총위영은 비록 짧은 시기 동안 운영되긴 했지만 다양한 군사 훈련을 받고 여러 숙위 임무를 수행하며 이전보다 국왕 숙위를 일정하게 개선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총위영 군사활동의 실효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볼 것이다.

34) 『일성록』 정조 7년 11월 20일, 궁둔의 경우 조 2.5석이 미 1석으로 계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입하면 총위영 둔전의 미곡 수입은 미 약 3,072석으로 계산된다. 한편 19세기 전반 총융청의 세입과 세출은 『만기요람』 군정편 3 총융청 채용의 1년 ‘一年應下錢’과 ‘一年應下米各穀’의 기록을 참조했다.

3. 총위영의 숙위 강화와 군사운영

숙위 군영으로서 군사편제·시설·재정을 정비한 총위영은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군사활동을 전개하였다. 본 장에서는 총위영의 군사활동이 이전 시기 숙위 운영의 한계를 어떻게 보완하고 숙위 기능의 내실화에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하였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총위영의 군사활동을 교육과 군사훈련, 시위(侍衛), 입직(入直)의 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교육과 군사훈련의 경우, 총위영 경영과 북한산성 관성소와 승영 소속 병력은 조련(操鍊)·습진(習陣)·사습(私習)·시사(試射)·강사(講射) 등으로 구성된 비교적 체계적인 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는 숙위군영으로 요구되는 전술 및 무예의 숙련도를 계발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

조련과 습진은 경영 소속의 보군과 선기대를 대상으로 하는 부대 단위 전술 훈련이었다. 조련의 경우 매년 사맹삭(四孟朔)인 1월, 4월, 7월, 10월에 국왕의 친림 아래 창덕궁 일원에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³⁵⁾ 실제로는 시행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습진의 경우 조련이 없을 때 시행하는 부대단위 훈련으로 육화진(六花陣)·현무진(玄武陣) 등 진법 훈련이 주를 이뤘다.³⁶⁾ 실제로, 현종 14년(1848)에 노량진에서 습진이 시행된 것이 기록상으로 확인된다.³⁷⁾

35) 『총위영사례』 권 1, 操鍊, “禁苑親閱, 每年四孟朔, 大將稟旨設行爲白齊, 親聞定式, 每年四孟朔初十日設行”.

36) 『총위영사례』 권 1, 習陣.

37) 『승정원일기』 2479책, 현종 14년 10월 12일, “明迪啓曰, 摠衛別將趙存中, 以習陣事, 驚梁津今方出去矣”.

한편 사슴은 매달 세 차례 시행되는 초 단위의 실기훈련으로, 혜화문 밖과 남산 노적봉 일대에서 보군·선기대·각종 표하군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보군은 조총 사격, 선기대는 기추·유엽전 및 마상무예를 중심으로 훈련하였고, 표하군 역시 각자의 주특기와 조총 사격 등을 익혔다.³⁸⁾

전술한 바 18세기 후반 이래로 총융청 경표하군이 숙위에서 주요한 임무를 맡았기에 표하군에 대해서도 사슴이 시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매년 연말에는 연미정에서 1년 동안의 사슴을 총정리하여 우수자의 명단을 국왕에게 보고하기도 했다.³⁹⁾

시사는 총위영 훈련 가운데 가장 활발히 시행된 항목으로, 장관에서 보군·선기대·표하군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병력이 참여하였다. 일반적으로 시사는 매년 3월, 6월, 9월, 12월 4차례 실시하였다. 일반 시사 외에도 2년에 한번 시행하는 대비교(大比較)와 국왕이 친히 참관하는 친림시사 등 여러 형태의 특별시사도 시행되었다.⁴⁰⁾

그런데 총융청 시기 시사가 활·조총 사격 위주였던 것과 달리,⁴¹⁾ 총위영의 시사에서는 쌍검·월도·제독검 등 냉병기를 활용한 단병접전 무술까지 평가하였다.⁴²⁾ 이는, 국왕 행차에 대한 근접 호위 등 숙위 임무에 필요한 군사 역량을 계발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과거 단병접전에 대한 시취는 장번급료병이자 이른바 연하친병

38) 『총위영사례』 권 1, 私習.

39) 『승정원일기』 2457책, 현종 12년 12월 28일, “又以總衛營言啓曰, 今十二月二十八日二十九日年終放砲時, 器械數爻及監放將官·將校, 別破陣大砲手等姓名單子, 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40) 『총위영사례』 권 1, 試射.

41) 『만기요람』 군정편 총융청 中甸·試取.

42) 『총위영사례』 권 1, 試射, “將校以下馬步軍別較藝及未入格軍追試 非 特教不爲舉行別較藝鐵箭立芻馬技中月刀雙劍梨花槍交戰旗槍棍芻 ○步技中月刀雙劍交戰及外此青龍刀舉沙等技”.

(輦下親兵)으로 숙련도가 높고 숙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훈련도감 위주로 시행되었다.⁴³⁾ 따라서 총위영 병력에게 시사를 통해 냉병기와 단병접전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 것은 총위영 병력을 단순한 의장·호위 병력이 아니라 국왕 근접에서 실제 전투와 숙위를 수행할 수 있는 친병 성격의 상비 전력으로 육성하려는 조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강사는 장관(將官) 및 장교(將校)들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으로 유엽전 등의 활쏘기를 비롯해 『병학지남(兵學指南)』, 『진도(陣圖)』 등의 병서를 시험하는 것이었다. 강사는 1년에 총 18차례 이뤄졌으며 1년의 성적을 종합하여 거수자(居首者)는 국왕에게 보고하여 상을 내리도록 하였다.⁴⁴⁾

한편, 외영 소속 병력의 훈련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일반 속오군을 대상으로 한 습조는 시행되지 않았으나, 관문취점(官門聚點)을 통해 무기 점검과 간단한 제식훈련이 이루어졌다.⁴⁵⁾ 이는 이들이 시위나 근접경호보다는 국왕 행차 시 어가 10리 밖의 척후·복병·전어군(傳語軍) 등 비교적 단순한 외곽 임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경영 병력과 같은 집중적 훈련보다는 기본적인 동원태세와 경계 능력을 유지하는 수준의 훈련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기병 병종인 별효사에 대해서는 총융청 시기부터 시행되던 연간 정기 시험인 도시(都試)가 비교적 꾸준히 시행되었다.⁴⁶⁾ 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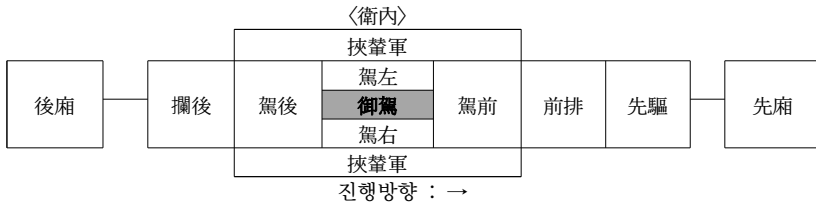
43) 『만기요람』 군정편 훈련도감 試藝 ; 『만기요람』 군정편 어영청 試藝 ; 『만기요람』 군정편 금위영 試藝.

44) 『승정원일기』 2480책, 현종 14년 12월 23일.

45) 『비변사등록』 234책, 현종 13년 1월 11일 ; 『비변사등록』 234책, 현종 13년 7월 12일 ; 『비변사등록』 235책, 현종 14년 1월 12일 ; 『비변사등록』 235책, 현종 14년 7월 16일.

46) 『승정원일기』 2456책, 현종 12년 11월 11일 ; 『승정원일기』 2466책, 현종 13년 10월 15일 ; 『승정원일기』 2478책, 현종 14년 10월 26일.

효사는 일반 속오군과 달리 정예성과 상비군적 성격을 지닌 기병 전력이었으므로, 습조가 정지된 상황에서도 그 군사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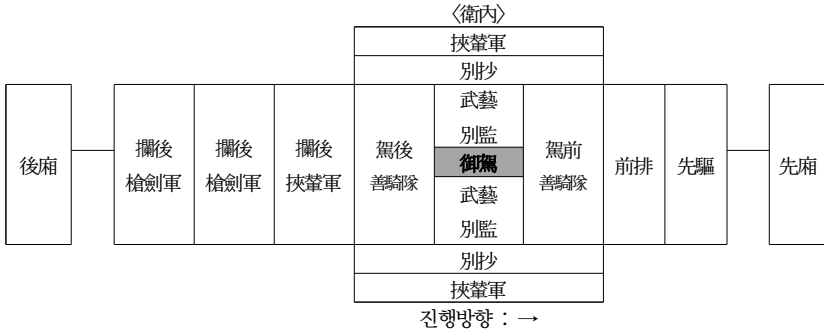
〈그림 2〉 19세기 전반 국왕 행차 시 시위(侍衛) 행렬의 구조

전거 : 『만기요람』 군정편 용호영,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陪扈條

상술한 바 교육과 훈련의 수행에 이어 총위영은 실제 숙위 임무의 수행에서도 일정한 개선을 보였다. 이는 특히, 시위와 입직의 측면에서 잘 확인된다. 19세기 전반 행차 시 시위의 기본 구조는 〈그림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선상·후상은 삼군문의 마군과 보군이, 선구는 용호영 기병이, 전배는 삼군문과 용호영 소속 금군이 담당하였다. 어가에 가장 인접한 위내(衛內)의 경우 가전은 어영청의 별초 혹은 가전별초가, 좌우와 후미는 금군이 맡았으며, 어가를 둘러싸는 협련군은 훈련도감 병력으로 편성되었다. 또 후방 방어를 담당하는 난후군은 금군과 훈련도감 계통 병력으로 운영되었다.

즉 총위영 설치 이전 행차 시위는 어가 근접 호위 병력마저도 용호영·어영청·훈련도감 등 여러 군영에 분산되어 있었다. 이는 시위 지휘체계의 일원화가 미흡하였음을 의미하며, 자칫 국왕의 신변 위협이 발생할 경우 대응의 지체를 초래하여 행차의 안전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었다.



〈그림 3〉 국왕 행차 시 총위영 시위(侍衛) 행렬의 구조

전거 : 『총위영사례』 권2, 배호(陪扈)

하지만 총위영 설치 이후 국왕 행차 시 시위 체계는 일정하게 개선되었다. 먼저, 총위사와 겸중군을 맡은 선기대 별장 및 종사관이 함께 행차에 참가하여 통솔하게 하는 방식으로 시위의 지휘 체계가 정돈되었다. 또한, 위내에는 무예별감, 별초, 협련군 등 총위영 병력을 증강하여 이전에 비해 보다 일원화된 시위 지휘가 가능해졌다.

또한, 어가의 배후를 호위하는 난후병력의 강화도 주목된다. 이전 시기에도 훈련도감의 난후별대등이 마련되었으나 실제 시위에 동원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⁴⁷⁾ 하지만 총위영의 경우 〈그림 3〉과 같이 난후군을 3개의 층위로 구성해 후방에 대한 호위를 강화하여 시위의 안전이 더욱 제고될 수 있었다.⁴⁸⁾

47) 『총융청행행등록』 순조 30년 2월 ; 『훈국등록』 권 56, 순조 31년 8월 3일 ; 『어영청거동등록』 권 38, 순조 34년 2월 7일.

48) 실제로도 이러한 규정이 일정하게 준수되었음이 기록상으로 확인된다(『결속색등록』 62책, 헌종 14년 2월, “昨秋例, 摠營馬軍一哨, 別將率領, 前後分半隨駕。(중략)” ; 『결속색등록』 62책, 헌종 14년 8월, “傳曰: 「摠營馬兵一哨, 別將率領, 前後分半隨駕。」” ; 『결속색등록』 헌종 13년 1월 6일, 3월 27일, 4월 23일, 7월 10일, “倭槍手一百名, 亦令摠營軍兵中抄擇。六十名挾輦軍頭局, 分左右侍衛; 四十名分左右侍衛於副輦爲白乎矣”.

시위에 있어서 어가에 대한 근접 호위 외에 관성소와 외영 병력도 일정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먼저 국왕이 탕춘대로 행차할 경우 관성장은 도총섭 이하 승영 소속 의승을 인솔하여 국왕을 영접하도록 규정되었으며, 실제 현종 13년(1847) 3월 탕춘대 시사에서도 이러한 절차가 확인된다.⁴⁹⁾

또한 국왕이 도성 밖으로 나갈 경우 관성소는 북한산성과 원효봉·의상봉 등 주요 지점의 수직과 요망, 척후 임무를 담당하였다.⁵⁰⁾ 이는 총융청 시기부터 수행해 온 북한산성 일대 경계 기능을 총위영 체제 아래에서도 계승한 것이었다.⁵¹⁾ 한편 국왕이 장릉 등지에 행차할 경우 총융청 시기의 전례에 따라 야간에 외영 소속 속오군이 십리 밖 주요 고개와 길목에 배치되어 척후·복병·전어군 임무를 수행하였다.⁵²⁾

즉 총위영은 총융청 이래의 관성소·외영 체계를 계승하였으나, 그 운영의 중심은 북한산성 자체의 방어보다 국왕 행차와 숙위를 위한 외곽 경계의 강화에 있었다. 총위영은 관성소와 외영 병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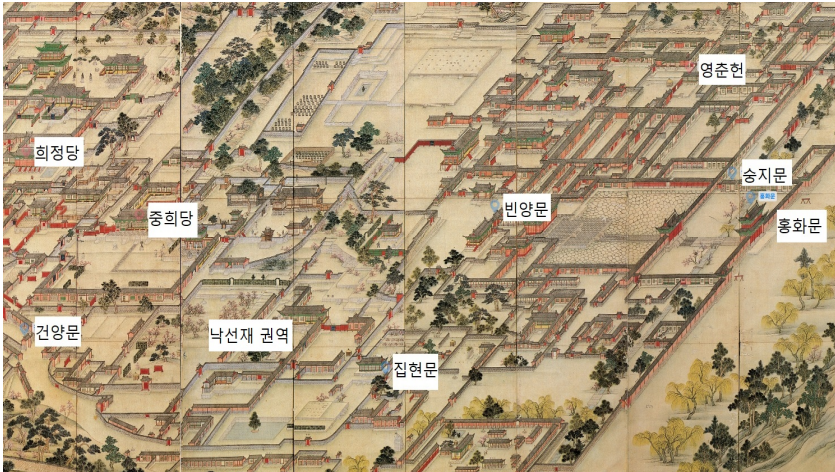
49) 『총위영사례』 陪扈, “蕩春臺動駕時, 管城將率摠攝以下僧校卒於信地迎接爲白齊。(중략) 傳令: 「今此蕩春臺親臨瑞葱臺時, 管城將率僧校外, 新營通廣處祇迎之意, 知委事。」丁未三月日受教.”

50) 『총위영사례』 陪扈, “行宮留屯將官將校四人, 別破陣三名. 東西南城門加定將校一人, 牙兵一名. 門部將軍土[元]數之外, 水門·中城門·七暗門及義相·元曉兩峰, 各將校一人, 僧校一人, 牙兵·僧軍各一名把守. 其餘並留陣鎮管城所”.

51) 실제로, 현종 13년(1847) 2월 현종이 파주에 위치한 장릉 일대로 행차했을 때 검별장으로 행차에 참여한 관성장 심낙신을 대신해 우사좌조의 초관인 김영구가 북한산성 일대의 수직을 주관하기도 했다.(『결속색등록』 62책, 현종 13년 1월 6일, 3월 27일, 4월 23일, 7월 10일, “粘目: 管城將 沈樂臣, 以兼別將參陣, 代右司左哨官 金永求, 今日上去于北漢, 守直山城之意, 敢稟. 判付內: 依準事. 丁未二月日”.

52) 『결속색등록』 61책, 현종 13년 2월 일, “啓曰: 在前幸行時, 畿邑所管斥堠·伏兵·傳語軍, 以摠戎廳·廣州府各隨地方舉行矣. 摠戎廳則移屬總衛營, 總衛大將處依例隨地方舉行之意知委何如? 傳曰: 允”. : 『결속색등록』 62책, 현종 14년 2월 일, “啓曰: 在前幸行時, 十里外斥堠·伏兵及傳語軍, 以畿邑所屬東伍步軍舉行矣. 今亦依此磨鍊何如? 傳曰: 允”.

활용하여 국왕 근접의 시위뿐 아니라 외곽의 척후·요망·복병 체계까지 통합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기존 충융청의 외곽 방어 기능을 국왕 중심의 숙위 체계 안으로 포섭하고자 하였다.



〈그림 4〉 19세기 전반 동궐 권역 및 충위영의 입직처

전거 : 『동궐도』(조선시대 배치도(<https://lee-han.github.io/>))

시위와 함께 숙위의 주축을 이루는 임무인 입직(入直)의 수행에 있어서도 일정한 정비가 이뤄졌다. 먼저 창경궁의 정문인 홍화문을 비롯해 송지문·빈양문·건양문 등 동궐 권역의 주요 출입문에 충위영 입직 병력이 배치되었다.⁵³⁾

이는 헌종의 실제 생활공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헌종은 주로 창경궁과 창덕궁 동궁 권역에서 생활하였으며,⁵⁴⁾ 특히 희정당·중희당·낙선재·영춘헌 일대는 헌종의 주요 거처이자 정사

53) 『충위영사례』 권1, 入直條.

54) 이민아, 「孝明世子·憲宗代 宮闈 營建의 政治史的 的의」, 『韓國史論』 54, 2008.

(政事)를 보는 공간이었다.⁵⁵⁾ 따라서 송지문·건양문·집현문·빈양문·동룡문 등에 대한 입직은 단순한 궁문 수비를 넘어, 국왕의 일상적 거처와 동선을 직접 방호하는 의미를 지녔다.

본래 총위영 설치 이전에는 홍화문과 송지문은 훈련도감, 건양문은 금위영이 관할하였다.⁵⁶⁾ 그러나 총위영 설치 이후 이들 주요 출입문은 모두 총위영 관할로 재편되었다.

한편, 빈양문에는 본래 별도의 입직 병력이 없었다. 기존에 별도 입직 병력이 없던 빈양문에까지 병력을 배치한 점은, 동궐 숙위가 보다 촘촘하게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총위영이 현종의 주요 생활 공간을 직접 방호하는 핵심 숙위군영으로 자리 잡았음을 방증한다.

한편, 궁궐 이외에 직방, 총위영 신영, 외신영 등 기타 시설에 대해서도 입직 병력의 배치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는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여러 군영에서 병력을 이속받고, 장교와 원군(元軍)뿐 아니라 각종 표하군과 원역까지 입직에 참여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간에서는 입직 병력의 부족이 확인된다. 이를테면 건양문의 경우 총위영 패장이 관할하였으나, 실제 입직 병력은 금위영 향군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당시 금위영 향군의 정원이 일상화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총위영 입직 운영의 잠재적 위험요소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55) 현종 11년부터 현종 15년 사이에 특히 영춘헌에서 소대한 기록이 많이 확인된다(『憲宗實錄』 卷 12, 憲宗 11年 10月 29日 ; 『憲宗實錄』 卷 12, 憲宗 11年 11月 9日 丙寅 ; 『憲宗實錄』 卷 13, 憲宗 12年 1月 21日).

56) 19세기 전반 동궐 입직 병력의 구성은 申明鎬, 「순조대 壯勇營 革罷와 東闕 宿衛體制」, 『軍史』 60, 2006, 151쪽이 참조된다.

〈표 3〉 총위영의 입직 장소와 내역

입직 장소	인원		교대
홍화문	담당자	초관 1	3일마다 윤회입직
	군병	초병 80	
송지문	담당자	지구관 2	3일마다 윤회입직
	군병	순령수 8, 뇌자 8, 등롱군 4	
			内侍令書吏 1, 書字的 1, 牌頭 1, 使令 2, 驅從 1
빈양문	담당자	가진별초 2	3일마다 윤회입직
	군병	초병 20	
건양문	담당자	총위영 패장 2	미상
	군병	금위영 파총 1, 교사 1, 향군 74	
총위영 신영	담당자	1 (좌우사파총과 선거대 3초 선거장이 윤회)	3일마다 윤회입직
	군병	지구관 1, 별무사 1, 순령수 2, 뇌자 2, 대기수 15, 취고수 12, 당보수 6, 장막군 6, 고직 2	
총위영 직방	담당자	초관 1, 교련관 1	3일마다 윤회입직
	군병	별무사 1, 선거대 30, 아병 4, 초군 1	
외신영과 평창 (연용대)	담당자	별무사 1, 부료군관 2	3일마다 윤회입직
	군병	우아병 20	
	원역	고직(庫直) 2	
대장소(大將所)	담당자	교련관 2, 별무사 1	3일마다 윤회입직
	군병	순령수 8, 뇌자 8, 등롱군 2, 배기수 4	
	원역	書吏 2, 書寫 1, 文書直 2	
종사관소(從事官所)	담당자	배기수 1	매일 윤회입직
북한산성	담당자	교련관 1, 기패관 1, 부료군관 1	매일 윤회입직
	군병	삼군문 유영 초관 1, 군사 1, 기수 6	
	원역	서원 1, 대청직 1	

전거 : 『總衛營事例』 권1, 入直條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위영의 입직 체계는 도성 내부에만 한정되지 않고, 북한산성과 연용대 일대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앞서 국왕 행차 시 해당 시설들이 시위를 비롯해 요

망·척후 등의 거점으로 활용되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총융청 이래의 도성 외곽 방어 기능을 계승하는 한편, 이를 평시 입직 체계 속에 제도적으로 편입함으로써 유사시 대응력을 높이려는 조치였다고 판단된다.

4. 현종 사후 총위영 폐지와 총융청으로의 환원

총위영은 설치된 이후에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 훈련을 수행하는 한편 국왕 행차 시의 시위(侍衛), 궁궐 일대의 입직(入直) 등 숙위를 내실화를 위한 개편을 추구하였다. 하지만 총위영의 운영과정에서는 군사 및 조직과 재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가 노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총위영은 현종의 ‘숙위군영’이라는 특수한 목적으로 마련되었기에 현종이 사망한 이후 곧바로 총융청으로 환원되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총위영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와 현종 사후 총융청으로의 환원 과정과 내용 및 후대에 미친 영향과 성과를 정리하고 그를 통해 총위영 설치의 역사적 의의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먼저 운영과정에서의 한계와 관련해 궁궐의 주요 출입문에 대한 입직 병력의 배치에서도 일정한 문제가 나타났다. 일부 입직 구역에 대한 병력 배치와 임무 수행이 다소 형해화 된 것이다. 이는 특히 총위영 창설 과정에서 훈련도감을 중심으로 여러 중앙군영의 병력이 총위영으로 이속되어 입직 병력이 부족해진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총위영의 군병은 상당수가 삼군문 등 기타 중앙군영의 병력을 이속하는 방식으로 마련되었다. 따라서 병

력이 감축된 군영의 경우 입직 임무 수행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게 된 것이다. 특히, 훈련도감의 경우 6초의 보군과 480여 명의 협련군과 158명의 무예별감 및 각종 표하군을 비롯해 기존 병력의 1/3에 달하는 약 2,000여 명에 가까운 병력이 총위영으로 이속되었다.⁵⁷⁾

이처럼 삼군문의 병력 상당수가 총위영에 이속되는데 반해 총위영의 입직처가 창경궁과 낙선재 일대에 집중되면서, 기존에 훈련도감 병력이 담당하던 창덕궁 서측 구역의 입직은 점차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다. 더욱이 금위영·어영청의 향군 번상이 자주 정지되면서 해당 군영의 입직 역시 형해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건양문의 경우 총위영 패장 휘하에서 금위영 군병이 입직하도록 규정되었으나, 현종 14년(1848)에는 정번된 금위영 향군을 대신해 본래 금호문에 입직해야 할 훈련도감 군병이 건양문에 배치되는 사례가 확인된다.⁵⁸⁾

물론 금호문은 동궐 중심 구역과 다소 거리가 있었고, 이전부터 향군 정번 자체는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총위영 창설 직전인 현종 11년(1847)에는 훈련도감 병력이 건양문 대체 입직과 별도로 금호문에도 추가 배치된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⁵⁹⁾ 1848년 사례는 총위영 창설 과정에서 훈련도감 병력이 이속·축소되며 기존 입직 체계 유지에 한계가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총위영의 운영 과정에서 군사 임무 수행뿐 아니라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부작용이 나타났다. 먼저 추가적인 지출이 늘어났다. 앞

57) 『총위영사례』 권 1, 軍制.

58) 『승정원일기』 2472책, 현종 14년 4월 15일, “應植曰, 禁御兩營鄉軍, 今當徵番, 建陽門入直訓局軍, 將於五月初一日, 以禁衛營鄉軍替代, 把摠亦當依前還直於金虎門”.

59) 『승정원일기』 2437책, 현종 11년 3월 17일.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총위영의 창설 과정에서 조정에서는 새로운 군영의 마련으로 인한 재정의 지출을 가장 우려하였다.⁶⁰⁾ 이에 현종은 기존에 마련된 총융청의 조직을 중심으로 기타 중앙 군영의 시설과 병력 및 물자 등을 이속하는 등 지출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총위영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총위영의 운영 과정에서 오히려 추가적인 재정 지출이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로, 황해도 황주목 일대에 총위영의 추가적인 둔전을 마련하기 위해 3만 5천냥이 지출되기도 했다.⁶¹⁾ 이는 앞서 확인한 바 총위영의 정규 세입의 두 배에 가까운 액수로 총위영의 운영을 위해 상당한 국가의 재정이 활용되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총위영의 운영 과정에서 균역청에 대한 재정 의존이 심화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균역청의 재원을 활용해 군병의 급료를 지급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군영에서 총위영으로 이속된 군병의 급료는 각 군병의 본래 소속 군영에서 담당하게 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삼군문은 균역청이 해당 군영에게 지급해야 하는 급대가를 전용하여 총위영에 납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총위영 창설 이듬해인 현종 13년(1847) 삼군문이 공히 균역청의 급대미를 활용해 총위영에 요미(料米)를 이획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것이다.⁶²⁾ 이는 운송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균역청

60) 『승정원일기』 2453책, 현종 12년 7월 25일.

61) 『승정원일기』 2498책, 철종 1년 1월 29일, “相五曰, 本廳復設之初, 慈聖殿下, 特軫經用之不敷, 以黃州屯田畓, 劃付本廳, 而此屯曾於總衛營時, 給價三萬五千兩新買者也”.

62) 현종 13년의 기록인 『版籍司謄錄』에서는 “當爲移送別營, 而輸移難便故, 就均廳所在本廳給代米中九百三十一石後錄磨鍊換劃以送爲去乎.(중략)御營廳爲相考事.總衛營駕前別抄兼內吹等來戊申所下料米七百六十八石三升六合, 就均廳所在本廳給代米中後錄磨鍊換劃, 以送于別營爲去乎”와 같이 금위영, 어영청 등의 군문에서 모두 균역청 급대미를 활용해 요미를 마련하는 것이 확인된다.

에 대한 총위영의 재정 의존성을 심화하는 기제로 작용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와 같이 총위영은 운영 과정에서 다른 균영의 조직과 재원을 축소하고, 균역청 등에 대한 재정의존이 심화되는 등의 문제가 노정되었다.

이처럼 총위영은 운영과정에서 군사 임무 수행, 재정 운영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적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났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총위영은 안동김씨의 세도 권력이 일시적으로 소강상태를 보이던 시기, 국왕인 헌종이 정조대의 장용영 사례를 전범으로 삼고 아버지인 효명세자를 계승하여 친위세력을 확보한다는 특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창설한 조직으로서 정국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해체 될 수 있다는 태생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표 4〉 總衛使 역임 인물

성명	재임기간	임명 전 직위	이후 직위
李惟秀	1846.08.18.~1847.01.27.	금위대장	훈련대장
徐憲淳	1847.01.27.~1849.01.17.	이조판서	이조판서
李應植	1849.01.17.~1849.05.17.	훈련대장	훈련대장
徐相五	1849.05.17.~1849.06.28.(1개월)	어영대장	**총용대장

*출처 : 『備邊司謄錄』, 『承政院日記』, 『登壇年表』

**총위영의 총용청 환원으로 인한 직위 변경

실제로, 총위영의 창설과 운영에 관여한 인물들의 특성에서도 이러한 점은 잘 드러난다. 먼저 총위영의 창설 과정에는 풍양조씨 세력의 일원으로 효명세자의 측근이었으며 안동김씨 세력과 대립각을 세우던 조병현(趙秉鉉)이 병조판서의 자격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⁶³⁾

63) 이민아, 앞의 논문, 2000, 236쪽.

이후 총위사의 인선에 있어서도 이러한 맥락이 두드러졌다. 먼저, 초대 총위사인 이유수(李惟秀)는 이순신의 후손으로 효명세자의 대리청정 시기 포도대장 등을 역임했으며 효명세자 사후인 1830(순조 30) 조병현의 측근으로 지목되어 탄핵당한 바 있는 인물이었다.⁶⁴⁾

두 번째 총위사이자 가장 오랜 기간 총위사를 역임한 서희순(徐熹淳)의 경우 문과 출신이었는데 이른바 대리청정 시기 효명세자의 최측근인 이른바 익종사각신(翼宗四閣臣)의 하나로서,⁶⁵⁾ 1846년(현종 12) 효명세자의 묘소인 수릉 천장 과정에서 천릉도감당상으로 활동한 인물이었다.⁶⁶⁾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현종은 서희순을 중비(中批)를 통해 총위사로 임명하였다.⁶⁷⁾

서희순의 뒤를 이어 총위사를 역임한 이응식은 무관출신으로 1848년(현종 14) 수릉의 식목사업을 주도한 공로로 공조판서에 임명된 바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또한 당시 풍양조씨의 중심 인물이었던 조병현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⁶⁸⁾

총위영의 재정 실무 등을 담당하는 군향색종사관 직임을 맡았던 윤치영(尹致英)도 조병현의 측근으로 평가받는 인물이었다.⁶⁹⁾ 이처럼 총위영 조직은 현종의 친위군영으로서 그의 측근 세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기에 정국이 변화될 경우 오래 지속하지 못할 가능성을 이미 내포하고 있었다. 특히, 안동김씨와 대립각을 세우던 풍양조씨와 밀접한 인물들이 총위영 운영에 크게 관여하고

64) 김정자, 「순조 후반 현종 연간 정국과 정치세력의 동향 - 효명세자 대리청정 시기와 이후 『推案及鞫案』에 실린 사건을 중심으로 -, 『韓國學論叢』 54, 2020, 90~92쪽.

65) 김정자, 위의 논문, 2020, 82쪽.

66) 『승정원일기』 2448책, 현종 12년 3월 8일.

67) 『헌종실록』 권 14, 현종 13년 1월 27일.

68) 『철종실록』 권 1, 철종 즉위년 7월 14일 · 15일, 8월 10일 20일.

69) 『승정원일기』 2459책, 현종 13년 3월 15일 ; 『철종실록』 권 1, 철종 즉위년 7월 14일 · 15일 · 16일.

있다는 점은 주된 위협요소였다.

실제로, 1849년(헌종 15) 6월 6일 헌종이 후사 없이 중희당에서 사망하고 정국이 급변하면서 총위영은 채 한 달이 걸리지 않는 기간 동안 다시 총융청으로 환원되었다. 헌종이 후사 없이 승하하였기에 순원왕후는 은언군의 손자로서 민진용 옥사 사건에 연루되어 강화도로 유배되었던 이원범을 자신과 순조의 양자로 삼아 즉위시킨 후 두 번째 수렴청정을 시작하였다.⁷⁰⁾

이를 통해 정국은 다시 순원왕후를 중심으로 하는 안동김씨 세력에 의해 장악되었다. 철종이 즉위한 이후 순원왕후는 풍양조씨 세력의 중심인 조병현을 비롯해 헌종이 새롭게 발탁한 친위세력에 대한 숙청을 시작하였다.⁷¹⁾ 이와 동시에 순원왕후는 본격적으로 총위영을 해체하고 총융청으로 환원하기 위한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갔다.

먼저, 순원왕후는 헌종의 왕릉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총위영의 물력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실제로, 헌종 사망 이틀 후인 1849년 6월 8일에는 총위영의 물력 10만 냥을 산릉도감 등에 이속하여 왕릉의 조성에 활용하게 하였다.⁷²⁾ 6월 23일에는 정조 사후 장용영의 숲, 철, 석회 등을 왕릉 조성에 사용한 예를 본따 총위영에서 보관하고 있던 숲, 철, 석회 등을 왕릉 조성에 사용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⁷³⁾

이어서 점차 총위영의 숙위 기능과 군사 조직을 와해하는 작업이 시행되었다. 6월 27일에는 총위영의 군제를 다시 기존의 총융청의 절목에 따라 환원하였다. 총위영으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감

70) 『헌종실록』 권 16, 헌종 15년 6월 6일 ; 『철종실록』 권 1, 철종 즉위년 6월 17일·23일.

71) 김명숙, 「雲石 趙寅永의 政治運營論」, 『朝鮮時代史學報』 11, 1999, 129쪽.

72) 『승정원일기』 2487책, 헌종 15년 6월 8일.

73) 『승정원일기』 2487책, 철종 즉위년 6월 23일.

하되었던 총용청의 직책들을 비롯해 외영(外營)의 편제도 기존의 것으로 회복되었다.

총위영의 설치 이후 훈련도감 등 다른 군영에서 총위영으로 이속되었던 군병과 물자들을 모두 본래 소속 군영으로 환원하는 조치가 이어졌다. 이로써 중앙군영의 편제와 병력은 총위영 설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었다.⁷⁴⁾

군사조직을 해체하고 군병을 환원한데 이어 총위영 설치 이후 마련되었던 시설과 군사 물자에 대한 정리도 이뤄졌다. 과거 장용영 영사(營司)가 위치했던 곳에 새롭게 건설되었던 이현의 총위영 신영 및 창고 시설은 훈련도감에 이속되었다. 순조대 이후 총용청이 원래 가지고 있던 직방(直房)은 총용청이 계속 쓰도록 하되, 총위영 창설과정에서 여러 군영에서 이속된 무기 등의 군사 물자는 각기 원소속 군영으로 다시 옮기도록 조치하였다.⁷⁵⁾

이상의 조치에 바탕하여 6월 28일에는 군영의 명칭을 다시 총용청으로 환원하는 조치가 이뤄졌다.⁷⁶⁾ 총용청으로의 환원 이후에는 총위영 설치 이후 가장 규모가 큰 재원으로 활용되었던 여러 둔전을 이속하는 조치가 진행되었다.

먼저, 여러 군영에서 이속된 둔전들은 각기 원소속처인 군영으로 환속되었다. 철현둔과 태탄둔은 본래의 소속처인 훈련도감과 어영청으로 귀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노량진과 삼전도 등 총위영으로 이속되었던 진보도 다시 각기 금위영과 광주유수부로 돌려주었다.⁷⁷⁾

총위영 설치 과정에서 여러 궁방과 내수사 및 호조에서 이속된 둔전들에 대한 처리도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서 처리 당시의 기

74) 『비변사등록』 236책, 철종 즉위년 6월 27일.

75) 『비변사등록』 236책, 철종 즉위년 6월 27일.

76) 『철종실록』 권 1, 철종 즉위년 6월 28일.

77) 『승정원일기』 2487책, 철종 즉위년 6월 29일.

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관련 기록을 참고 해 볼 때 총위영 둔전 중 상당수는 끝내 궁방과 내수사로 귀속된 것으로 판단된다.⁷⁸⁾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현종대 후반 3년여에 걸쳐 총용청을 국왕의 숙위군영인 총위영으로 개편하기 위해 진행되었던 시도는 끝내 무위로 돌아갔다. 현종 사후 총위영은 다시 본래의 총용청 편제로 환원되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총용청의 총위영으로의 개편과 숙위군영 확보 시도는 결국 실패로 끝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총용청을 총위영으로 개편하고 운영해 본 경험을 일정한 역사적 의의를 지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19세기 전반 조선의 수도방어체제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였다. 총위영은 총용청이 18세기 이래 축적해 온 도성 외곽 방어와 행차 지원 기능을 계승하면서도, 이를 궁궐 수비와 국왕 근접 호위, 외곽의 척후·요망까지 포괄하는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숙위 임무로 재편한 군영이었다.

비록 현종 사후 단기간에 총용청으로 환원되었지만, 이러한 개편과 운영의 경험은 총용청의 기능이 도성 외곽 방어 중심에서 숙위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었음을 제도적으로 정비한 것이었다. 나아가 19세기 조선 수도방어체제가 외곽 방어와 궁궐 숙위를 결합하는 방향으로 재편되어 가는 흐름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78) 이를테면 전주와 익산의 총위영 둔전은 총위영 해체 이후 호조에 이속되었다가 철종 4년(1853)에 명례궁으로 귀속되었다. 이후 철종 11년(1860)에 이를 호조로 다시 환속하라는 조치가 이뤄졌으나 이후 고종대에도 해당 둔전이 명례궁 소속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해당 조치는 시행되지 않았거나 이내 반려된 것으로 판단된다(『비변사등록』 247책, 철종 11년 3월 4일 ; 『승정원일기』 2673책, 고종 1년 2월 8일).

5. 맺음말

19세기 전반 군사환경의 변화 속에서, 기존의 도성 중심 방어전략은 개편이 불가피하였다. 이에 조선 정부는 제한된 재원과 병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왕조국가의 중심인 국왕에 대한 숙위 기능을 특화한 군영의 마련을 추구하였다. 특히 현종은 친정 이후 정조와 효명세자의 문제의식을 계승하여 친위세력 강화를 도모하였고, 그 연장선에서 현종 12년(1846) 8월 총융청을 총위영으로 개편하였다.

총위영은 기존 총융청의 도성 외곽 방어와 행차 지원 기능을 계승하면서도, 이를 국왕 중심의 숙위 체계 안에 포섭한 군영이었다. 특히 총융청 이래의 관성소·외영 체계를 포섭하여 궁궐 입직과 국왕 근접 호위, 행차 시위뿐 아니라 외곽의 척후·요망을 숙위 임무에 포섭하는 방식으로 숙위의 강화에 주력하였다.

물론 총위영은 현종의 친위세력 확보라는 정치적 목적과 세도정국의 일시적 균형 위에서 성립한 군영이었기에, 현종 사후 정국재편과 함께 불과 3년여 만에 혁파되었다. 그러나 그 설치와 운영의 경험은 결코 일시적 조치에 그치지 않았다. 이는 정조대 장용영 설치의 문제의식을 계승하는 한편, 총융청의 기능을 도성 외곽 방어 중심에서 보다 포괄적인 숙위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제도적으로 가시화한 사례였다. 나아가 이러한 경험은 이후 고종대 무위소 설치와 같이, 북한산성·도성·국왕 행차를 아우르는 숙위군영 구상으로 일정하게 계승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한편 철종대 총위영이 총융청으로 환원된 이후에는 재정 보강 조치가 이루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총융청은 일정하게 운영 기반을 회복하였다. 그 결과 총융청 병력은 고종대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등에서도 일정한 군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총위영의 설치와 해체, 그리고 이후 총융청의 재정·군사 운영 변화가 19세기 후반 수도방어체제 재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추후 별도의 검토를 통해 보다 본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사료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日省錄』

『備邊司謄錄』

『摠衛營事例』(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2-3378)

『萬機要覽』

『摠戎廳幸行謄錄』(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2-3383)

『結束色謄錄』(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12928)

『明禮宮秋收記』(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 21979)

『明禮宮望海亭郡主房秋收記』(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 20178)

『黃海道安岳信川所在順豐屯田畚打作收稅成冊』(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 19291)

『於義宮順豐屯下坪七處所秋收都聚成冊』(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20366)

『順豐屯上坪六處所秋收都聚冊』(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20997)

『全州益山屯番應下磨鍊節目』(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18288의21)

『版籍司謄錄』(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18182)

2. 단행본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7, 탐구당, 1977.

한국역사연구회 편, 『조선정치사』(상)(하), 청년사, 1990.

李泰鎭, 『朝鮮後期の 政治와 軍營制 變遷』, 韓國研究院, 1985.

최효식, 『朝鮮後期軍制史研究』, 신서원, 1995.

車文燮, 『朝鮮時代 軍事關係研究』, 단국대학교 출판부, 1996.

심승구, 『조선후기의 수도방위체제』, 서울학연구소, 1998.

배향섭, 『19세기 조선의 군사제도 연구』, 국학자료원, 2002.

노영구, 『영조대의 한양 도성 수비 정비』,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3.

이왕무, 『조선시대 국왕의 행행(行幸) 연구 - 왕실 능행을 중심으로』, 한국학 중앙연구원 출판부, 2022.

3. 논문

- 金甲童, 「高麗時代의 都兵馬使」, 『歷史學報』 141, 1994.
- 김명숙, 「雲石 趙寅永의 政治運營論」, 『朝鮮時代史學報』 11, 1999.
- 권내현, 「조선후기 평안도 방어체제의 정비와 이완」, 『사학연구』 69, 2003.
- 申明鎬, 「순조대 壯勇營 革罷와 東關 宿衛體制」, 『軍史』 60, 2006.
- 이왕무, 「조선후기 국왕의 都城內 幸行의 추세와 변화」, 『朝鮮時代史學報』 43, 2007.
- 이민아, 「孝明世子·憲宗代 宮闕 營建의 政治史的 的의」, 『韓國史論』 54, 2008.
- 이광우, 「19세기 전반기 삼군문(三軍門)의 재정 운영 실태」, 『軍史』 89, 2013.
- 노영구, 「중앙 軍營과 지방군을 통해 본 조선후기 국방체제의 변화 양상」, 『藏書閣』 33, 2015.
- 김정자, 「순조 후반 헌종 연간 정국과 정치세력의 동향 - 효명세자 대리청정 시기와 이후 『推案及鞫案』에 실린 사건을 중심으로 -」, 『韓國學論叢』 54, 2020.
- 민장원, 「19세기 海防策의 전개와 서해안 방어체제의 재편」, 고려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2025.

<Abstract>

The Establishment of the Ch'ongwiyǒng under Hǒnjong and the Strengthening of Royal Guard Functions

Lee, Gang-won

This article examines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h'ongwiyǒng (總衛營) in 1846 under King Hǒnjong, as well as its abolition and subsequent reversion to Ch'ongyungch'ǒng (摠戎廳), in order to reconsider the reorganization of capital defense and royal guard systems in early nineteenth-century Chosŏn. Ch'ongwiyǒng was not simply a newly created royal guard camp, but a reorganized military institution built upon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of Ch'ongyungch'ǒng, which had long linked the defense of the capital and its outer perimeter through its bases at Yǒnyungdae and Pukhansansǒng.

In the first half of the nineteenth century, Chosŏn faced mounting constraints, including fiscal exhaustion, weakening military capacity, factionalized politics, and the growing threat posed by the appearance of foreign vessels. Under these conditions, Ch'ongyungch'ǒng had already expanded its functions from outer defensive operations to duties closely related to royal protection, including escorting royal processions, maintaining forward encampments, and participating in urban defense. The establishment of Ch'ongwiyǒng thus institutionalized and strengthened this

accumulated operational experience.

By absorbing troops and resources from other central military garrisons, Ch'ongwiyǒng concentrated on palace guard service, royal escort, and related protective duties, while reinforcing the substance of royal protection through training and organizational reconfiguration. Although short-lived, it marked the institutional crystallization of Ch'ongyungch'ǒng's functional transformation and a significant phase in the reorganization of late Chosŏn capital defense.

Key Words : Ch'ongwiyǒng, Hǒnjong, royal guard, Ch'ongyungch'ǒng, capital defense, military reorganization, nineteenth-century Chosŏn, military institutions

논문투고일 : 2026.04.09. 심사완료일 : 2026.05.02. 게재확정일 : 2026.05.12.